

건설현장 점검 형사고발 2건

원주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이 올해 강원권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479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이행 관리상황 집중 점검과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책임관리강화와 건

설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면 품질 110건, 안전 164건, 시공 124건, 가시설 27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다. 부실정도에 따라 형사고발(2건), 영업정지(7건), 시정(별점)명령(48건), 현지시정(240건), 주의(48건), 발주자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24건)를 부과했다. 유주현

# 정부, 내년 SOC예산 중 74.3% 상반기에 쓴다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  
경기 반등 위해 집중 투입

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다.

경기 반등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SOC 예산 가운데 74.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예산 512조 3000억원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427조 1000억원 중 내년 상반기에 305조원(71.4%)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비율인 70.4%

예산 상반기 배정 추이

( ): 예산 배정률, %



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3년 배정률이 71.6%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상반기 예산배정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부문별 상반기 배정률은 SOC 분야 74.3%, R&D 79.3%, 일자리 82.2%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SOC와 일자리 예산을 포함했다.

배정금액은 총 9조 6000억원이며 생활SOC 5조 5000억원, SOC와 일자리 4조 8000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8조 8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김명중 예산총괄과장은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in@